

3.2.1. 음악제작업 매출 현황

2009년 음악제작업 매출을 보면 3,6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.2% 증가했으나, 연평균은 4.3% 감소하였다. 음악제작업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‘음반 외 수익(음악관련)’의 매출액은 2,544억 원으로 음악제작업 내 매출액의 70.6%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‘음반 및 음원’은 735억 원으로 20.4%의 비중을 보이며, ‘음반(음원) 녹음시설 운영업’은 323억 원으로 가장 낮은 9.0%의 비중을 차지하였다. 연도별로 보면 ‘음반 외 수익(음악관련)’이 2007년 1,867억 원에서 2008년에 2,016억 원, 2009년에 2,544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전년대비 26.2%, 연평균 16.7% 증가하여 중분류 내 유일하게 성장한 산업으로 나타났다. ‘음반 및 음원’은 2007년에 762억 원에서 2008년에 802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2009년에 735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8.4%, 연평균 1.8% 감소율을 기록하였다. 마지막으로 ‘음반(음원) 녹음시설 운영업’의 감소현상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. 2007년에 1,301억 원에서 2008년에 392억 원으로 무려 90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69억 원이 감소한 323억 원으로 나타났다. 전년대비 17.6% 감소하였으며 연평균증감률은 무려 50.2% 감소하여 2007년 매출액의 1/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. 음반 및 음원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에 음반 외 수익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이는 음반 및 음원 제작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음반 외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. 또한 음반과 음원의 판매가 저조하여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음반과 음원에 대한 정당한 가격 지불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.

표 4.3.5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중분류	소분류	매출액(백만원)			비중 (%)	전년대비 증감률(%)	연평균 증감률(%)	
		2007년	2008년	2009년				
음악 제작업	음악 기획 및 제작	음반 및 음원	76,270	80,231	73,528	2.7	▽8.4	▽1.8
		음반외수익(음악관련)	186,729	201,611	254,459	9.3	26.2	16.7
	음반(음원)녹음시설 운영업*	130,195	39,246	32,342	1.1	▽17.6	▽50.2	
	소계	393,194	321,088	360,329	13.1	12.2	▽4.3	

*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음반(음원)녹음시설운영업과 복제업이 분리되어 2006년과 2007년 직접비교는 무리

그림 4.3.3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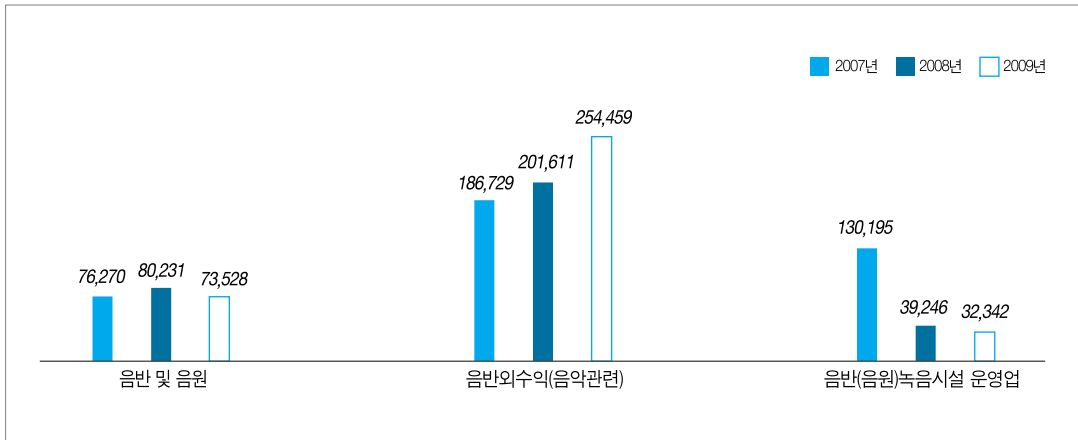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3.4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

(단위 : %)

